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신문답**

한암 스님(3)

만공, 납자들을 지도함이 어떠하오  
한암, 가난뱅이가 묵은 빛을 생각합니다  
만공, 늙은 침지는 입이 가난하느니라  
한암, 도둑놈 뒤에 활줄을 당김이라

만공(滿空, 1871~1946) 선사 가 묘향산에 있던 한암(漢巖, 1876~1951) 선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우리가 이별한 지 10여 년이나 되도록 서로 거래가 없었도다. 구름과 명월과 산과 물이 어디나 같건만, 북녘 땅에는 죽고 더움이 고르지 못할까 염려되오. 북방에만 계시지 말고 곁방을 지고 남쪽으로 오셔서 납자들이나 지도함이 어떠하겠소?"

한암 스님은 만공 선사에게 이렇게 답했다. "가난뱅이가 묵은 빛을 생각합니다."

만공 선사 가 다시 답했다. "손자를 사랑하는 늙은 침지는 자연히 입이 가난하느니라."

한암 스님이 다시 답했다. "도둑놈 간 뒤에 활줄을 당김이라."

만공 선사가 다시 답했다. "도둑놈 머리에 벌써 화살이 꿰혔느니라."

만공 스님이 한암 스님에게 남쪽으로 내려와 후학 양성에 나서달라고 청하자, 한암 스님이 선문답으로 사양하는 장면이다. 한암 스님은 가난뱅이가 묵은 빛을 생각할 정도로 지독하게 가난하다고 정색을 한다. 마음이 가난해져 '일체의 분별심을 텅 비워버린 경지(身心脫落) 여서, 한 마디도 설할 법이 없다는 자부심이 묻어낸 말이기도 하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요"라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듯이, 선가에서도 마음이 가난함을 미덕으로 여긴다. 대표적인 법문이 황엄 선사의 계승에 보인다. 양산 선사가 황엄 스님이 기왓조각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깨달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네가 다다른 심득(心得)의 경계가 어

떠하냐?"고 물었다. 이에 황엄 스님은 "작년의 가난은 가난이 아니고, 올해의 가난이 진짜 가난이다. 작년 가난은 송곳 세울 만한 땅은 있었지만, 올해엔 송곳조차도 없네"라는 계승으로 답했던 것이다.

<행자>에는 "마음을 기르는 것은 욕심이 적은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養心莫善於寡欲)"는 말이 있듯이, 소욕지족(少欲知足)은 마음공부의 기본이다. <유교경>에서는 "만일 모든 고뇌를 없애고자 한다면 마땅히 지족(知足)을 관

해야 한다"고 했고, <법구경>에서는 "지족은 제일의 부(富)이다"라고 한 것이 이 것이다. 이 같은 한암 스님의 가난뱅이 타령에, 만공 스님은 "활애비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손자를 아끼듯이 후학들을 지도해야 하는 것이냐"고 다그친다.

그러자 한암 스님은 "내 뜻은 이미 밝혔으니" 버스 떠난 뒤에 손 흔들지 마시라"고 한 방 먹인다. 만공 스님 역시 선지식인지라 고이 보내줄 리 없다. 도둑놈 심정은 도둑놈이 가장 잘 알기에, '그대의 본래면목에 화살을 적중시켰다(以心傳心)'로 뜻이 통했다는 의미"고 되받아친다. 장군명군이요 피장파장이자.

선가에서는 '천하와 우주를 출치는 위대한 작가 선지식'을 도둑놈이라 표현한다. 자아의식과 분별심, 번뇌 망상을 텅 비운 무심도인은 만법과 하나가 된 경지에 살기에 우주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든 도둑으로 상징한다. 불법을 완전히 체득하기 위해서는 천하를 출치는 대도(大造)의 기질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김성우 객원기자

# 번뇌·망상 내려놓고 자연 속에서 '休~'

## 부안 내소사의 '트레킹 템플스테이'

모처럼 휴가를 맞은 시민들이 저마다 바다로, 계곡으로 떠나 세속에서 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하지만 휴가가 끝나자 잠시 내려놓았던 짐을 또 다시 짊어지고 만다. 세간이나 출세간에서나 '비우고 쉬는' 것은 마음공부의 요체이다. 온갖 스트레스를 내려놓고 상쾌하고 편안하게 쉬 휴가 때의 텅 비고 맑은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것은 어렵까.

지난 8월 1~3일, 부안 내소사주지 진원에서 60여 명의 시민들이 동참한 트레킹 템플스테이는 '내려 놓는다'는 생각 없이 방하좌(放下) 공부의 묘미를 맛보게 한 수련회였다. 해안(海峴, 1901~1974) 선사가 호남불교의 선종을 진작시킨 선철이자, 아름다운 전나무숲을 자랑하는 내소사의 트레킹템플스테이는 사람과 자연이 돌이 아님을 깨닫게 한 이색 수련회였다.

2일 오전 9시 내소사에서 출발한 트레킹은 말이 트레킹이지, 능가산 봉우리에 오르지 않았다. 오히려 정상에 오르는 것에 조금씩 겁이 났다. 트레킹을 할 이유가 없음을 일깨웠다. 야트막한 산길과 계곡 길을 따라 자연을 벗 삼아 천천히 걸을 뿐, 길가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야생화, 나무, 바위, 폭포 등 자연과 대화를 나누며 사색에 빠져든다. 녹색의 숲에서 뿜어져 나오는 맑은 공기와 경치에 빠져 걸다보면 어느새 속세에서 풀고 온 잡념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없다. 숨이 차오르면서 말도 사라지고 생각도 끊어진다 보면 어느새 자연이 설하는 무정설법(無情說法)을 듣고 있는 것만 같다.

내반산탐방지원센터에서 봉래구곡을 따라 실상사지, 선녀봉, 반옥담을 지나 천천히 올라가니 적소폭포가 수려한 경관을 자랑한다. 휴식 시간에는 처음 보는 이와 과도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고, 온 가족이 함께 온 일행들은 집에서 못다 한 진지한 얘기도 나눈다. 적소폭포 앞에서 아

이들을 모아 놓고 국립공원 가이드는 나무와 꽃, 물고기들을 설명한다. 아이들은 처음 보는 동·식물을 보며 신선 같았다. 점심 시간에는 내소사에서 직접 만들어 온 유부초밥과 김밥으로 요기를 한다. 옥수담 아래로 내려앉히는 20미터의 폭포수 아래 발을 담그고 명상에 잠겨 있다 보면 온갖 시름이 말끔히 씻겨진다.

이어 제백이고개, 관음봉삼거리, 내소사 전나무숲길에 탐방객을 반긴다. 4시간여의 트레킹은 조금 땀이 날 정도로 힘들지 않은 코스였다. 유치원 아이들부터 70대 노인까지 무난히 소화할 수 있는 숲길이었다. '산이 있어 오르다'는 고정관념을 고집하지 않기, 보통의 등산과는 달랐다. 산과 계곡을 여유롭게 걸으며 자연을 감상하고 내반산의 역사도 배웠다. 원호·의상 스님, 부설 거사가 수행하던 유적들은 이곳이 모악산과 함께 호남의 양대 성지임을 확인시켰다. 대자연과 하나 되어 일상의 번뇌와 망상을 말끔히 씻어준 트레킹은 수행이 아니라, 그 아발로 유행(休行)이었다.

일체의 고정관념과 집착에 사로잡힌 '나(我相)'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참'로 거듭나는 여정이었다. 수행이란 느낌을 주지 않고도 저절로 마음을 비우게 한 것은 '여기에 들어오는 이들의 모든 일이 다 소생(蘇生)되게 하소서'라는 창건(633년)주 혜구대사의 원력 때문일까. 예를, 참선, 발우공양, 차담(茶談), 숲 체험놀이, 108염주 꿸기 등 수련회 프로그램 역시 금상첨화로 내방객들을 불교의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수경심(30·서울 논현동) 보살은 "자연과 동화되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게 트레킹수련회의 장점이다"며 "무교나 타종교인 참석자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선(禪)은 '참으로 쉬는(休)'으로부터



시작된다. 중국 고승 허운(1840~1959) 대사는 '몸이 곧 깨달음(歇即菩提)'이라고 말했다. 실제 선사는 "그대들의 목전에서 작용하는 자네들이 조사나 부처와 다를 바가 없다. 단지 모든 망념을 쉬고 또 쉬어(休歇) 무사히 지내는 것이 제일이다. 이미 일어난 망념은 계속되지 않도록 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망념은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다. 고인들의 가르침대로 휴식과 일이 돌 아가게 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삶을 누려보는 것은 어렵

### "욕심버리면 번뇌 없어"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



"구하지 않으면 번뇌가 없어요. 뭔가 얻으니까 괴로움이 생기지요." 내소사 봉래선원장 철산 스님(사진)은 밖으로 찾고 구하며

활력은 치구심(馳驅心)을 쉬는 게 참선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스승님(해안 선사)께서는 불법의 대의(大義)를 묻는 질문에 '나쁜 것도 버리지 말고, 좋은 것도 취하지 않는 것이 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철산 스님은 깨달음에 대한 최후의 집착마저 쉬라고 말했다. "찾고 구하는 마음을 쉬어 번뇌 망상이 사라지면 청정본심만이 드러납니다. 견성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버리세요."

철산 스님은 "언제 어디서나 대상과 생각에 끄달리지 말고 주인으로 살아가는 게 수행이다"고 말했다.

**아바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밤은길 아바타 센터**

전환하지는 본래는 언제든 보낼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 아바타 센터 김희교

● **전환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45-3  
전화 010-6230-2113 ● 021512-2736  
http://www.avatacenter.co.kr  
E-mail: heegyun@avata21.com

**수영개시판**

- **100일 출가수행**-문경 정토수련원은 '제3기 100일 출가 참가자를 모집한다. 19일부터 시작되는 100일 출가는 (금강경)·(육조단경) 경의 일만 배 정진 참회와 포살 등을 통해 자기 발견의 길, 마음 다스리는 법 등을 공부한다. (02)657-8990
- **스님과 함께 좌선수행**-남원 실상사 화엄원은 스님들과 함께 하는 좌선템플스테이를 8월 16~19일 실시한다. (063)636-3370
- **긴화선 입문과정**-조계종 중앙신도회 인계개발원은 8월 27일~11월 12일(매주 월 오후 7시~9시 30분) 조계사 극락전에서 긴화선 입문 제6기 일만 배 정진 참회와 포살 등을 연다. 선지식 친견, 화두 받기, 문답, 참선 실수 등으로 진행 (02)735-2428
- **철야 염불정진**-창계산 정토사는 8월 18일(매일 셋째 목) 오후 8시 철야 염불정진 법회를 연다. 보양 스님이 염불정진을 지도하고 수행 도중의 문사항에 대해 상담한다. (031)723-9797

외복 범등인에 2만인등과 연등으로 변화와 불공기도를 올릴수 있으며, 발바닥에 새겨진 음자를 손으로 문지르면 역음이 소멸되는 세계 최대 외복범등을 개설.

**세계 최대 와불(열반상)**

**소원 성취 기도도량 계향산 미암사 성지순례**

국유유장, 국민화합,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세계 최대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을 충남 부여군 미암사에 모셨습니다. 거대하고 웅장하게 모셔진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상이 노천불로 모셔졌고, 옛날부터 한가지 소원을 이룬다하여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불교성지 미암사에 찾아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세계 최대층진신사리탑 (33층)**

세계 최대층 탑인, 33층의 불사리 탑은 진신사리 1과가 자연 3과로 분과된 신비하고 영험이 있는 진신사리가 봉안되었습니다.

**쌀바위 전설**

(중남지방문화재 제371호 지정)

백제 침류왕때 유씨 할머니가 공들여 쌀도 나오고 자손도 얻어 미암(쌀바위)이라 불렀으며, 바위에서 원적외선이 방사되어 건강한 기운을 느낄수 있게 해줍니다.

국가안정과 소원성취를 기원하는 적멸보궁 **미암사**  
충남 부여군 내산면 저동리 ☎ 041)832-1188,1189 www.ssalbawi.com(또는, 한글로 미암)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8,500원 (염주, 염주 주머니)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사기법 / 희담석 합장주 증명 / 희담석합장주(납개) 1만원  
※ 사찰 및 단체 다량구매시 특별할인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려진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물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물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물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희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림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전화 02)2004-8219** [국민은행] 023-25-0007-617 (주)에이치비엠씨